

해수부, 「무인도서 100선」 발간

- 해양영토의 수호기지 무인도서의 재발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나라 2,918개 무인도서 중 해양생태·경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무인도서 10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 100선」은 2007년 시작한 무인도서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2017년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해양수산부가 매월 선정한 “이달의 무인도서” 59개 도서와 지자체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된 41개 도서를 합해 선별하였다.

무인도서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든직한 파수꾼이자 태고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에 간행되는 ‘무인도서 100선’은 자신만의 바다를 품고, 고유의 생태계를 이루면서, 해양영토를 결정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 이야기부터 그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지명을 의미하는 설화에 이르기까지 무인도서의 의미와 가치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무인도서 100선」 책자에는 13개 영해지점 무인도서와 광역자치단체별 소재한 무인도서의 주소, 좌표, 면적, 육지에서의 거리, 무인도서 관리유형 및 사진이 수록되어 있으며, 간행물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현태 국제협력정책관은 “우리나라 무인도서 모두가 소중한 해양영토이며 이번에 선정된 100선을 통해 국민들이 무인도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양영토의 소중함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001 호미곶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지	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691
위	도	36° 05' 29"N, 129° 33' 28"E
면적	222㎡	
면적	222㎡	
면적	1.5km (호미곶항)	



무인도서 100선 · 영해기점





1	2	3	4
---	---	---	---

- 호미곶 간경
- 영해기점등 표지
- 영해기점등에서 바라본 호미곶
- 호미곶항 상행지 손

호미곶은 대한민국 영해기점 무인도서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항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호미곶은 섬의 규모가 작아 영해기점 표지는 호미곶면 구만리 암석해안에 설치되어 있으며, 표석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천북기점 14° 방향의 667m 지점에 위치한다.

호미곶은 16세기 조선 명종 때 풍수지리학자인 남사고가 「산수비경」에서 "한반도는 백두산 호랑이가 앞발로 연해주를 잡히는 형상이며, 백두산은 호랑이 코, 호미곶은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국토 최동단을 측정하기 위해 영일만 호미곶을 일곱 번이나 답사 측정한 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임을 확인하고 호랑이 꼬리 부분이라 기록하였다. 일명 장기곶 또는 동쪽곶이라고도 한다.

영해기점 호미곶에서 남동방향 약 1.5km에는 포항의 관광명소인 호미곶 관광단지(가) 있다. 우리나라 내륙을 기준으로 가장 동단지역에 위치한 곳에 위치하여 일출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이다. 호미곶 관광단지 안에는 국립동대박물관을 비롯하여 호미곶 해안이랑정, 새천년기념관, 상생의 눈 조형물 등이 존재한다.



100 할미·할아버바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지	면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송언리 산27 외 1
위	도	36° 30' 06"N, 126° 19' 50"E
면적	2.65㎡	
면적	2.65㎡	
면적	0.2km (호미곶항)	



무인도서 100선 · 충남




1	2	3	4
---	---	---	---

- 할미·할아버바위 전경
- 보일봉
- 할미·할아버바위 안면읍
- 태안

할미·할아버바위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에서 약 0.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다양한 지질 현상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 자연을 관망하는 데 좋은 장소로 '명승 제66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리의 용기, 단층 등 지각변동이 이루어진 모습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나타나 있고, 바위 표면에 염분때문에 풍화되어 발집 모양을 이룬 타포니와 바다생물이 분비한 산성 물질에 의해 둘러진 보링셸(boring shell) 등 다양한 현상들이 관찰된다.

할미·할아버바위는 사랑하지만 아플 수 없이 떨어져 있어야 했던 부부의 애절한 전설이 내려온다. 신라 후기 왕비인 대왕이 청해진을 설치했던 때 이곳 출신의 승언이라는 기사가명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급히 출항한 승언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 망부석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후 폭풍우가 크게 치던 날 큰 바위섬이 새로 떠올라 지역 주민들이 그 바위를 할미·할아버바위라고 이름을 붙였고, 마을 이름도 승언리로 지었다고 한다.

할미·할아버바위는 절을 볼 때 드러나 탐방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전북 번산의 재석강, 인천 강화의 석모도와 함께 서해안의 3대 낙조 명소로 꼽힌다.